

18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 27미터, 너비 2.7미터의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 신상을 세운 ¹⁾낙성 예식에서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²⁾반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노하여 그 세 친구를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시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뜨겁게 타는 ³⁾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내겠느냐?”

그러자 세 친구는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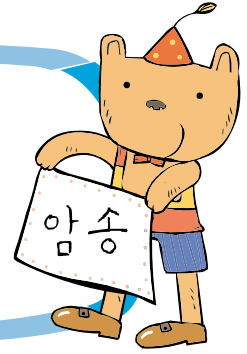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¹⁾낙성 예식: 동상이나 기념비를 다 만든 뒤에 완공을 알리는 의식

²⁾반포: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³⁾풀무불: 돌이나 흙, 쇠로 만든 도가니로 금속 등을 녹이고 제련하는 데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피운 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8)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화가 나서 평소 때보다 풀무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 속에 세 친구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불에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쩌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 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구나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무섭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으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는데
화상을 입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으며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자기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바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명하노니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무론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엄벌에 처할 것이니라!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도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 도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도 세 친구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 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한 세 친구의 대답에서 본받을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악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9)

여러분도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감한 결심을 하고 행동해 보세요.

* 두렵게(힘들게) 하는 것:

* 두려워(힘들게)하는 이유:

*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





예 화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았던 ‘헬레스코스타’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6백만 명의 유대인을 끌어다가 비참하게 집단 학살한 인간 가마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마솥에서 연기로 화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나는 원고요, 그는 피고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나는 억울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앞을 가로막아도 원망 대신 주님을 힘 있게 부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고통이 행복으로 변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살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여전히 남겨 놓으실 때에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